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연기

최장 1년... 관용·외교관 여권 을 12월부터 예정대로 현용 공백여권 재고 소진때 내년 12월 이전 발급 개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예정 시기가 올해 12월에서 최장 1년 후로 연기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여권 발급량이 감소했으며, 그로 인해 현용 공백여권의 재고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다만, 현용 공백여권의 재고가 소진

될 경우 내년 12월 이전이라도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전자여권의 안정적 발급체계 구축을 위해 재고 문제가 없는 관용·외교관 여권은 예정대로 오는 12월부터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향후 여권

발급량 추이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방문 신청으로 가능했던 여권 분실신고, 여권 진위여부 확인 등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평일 근무시간에 여권 발급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여권 야간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여권 우편 배송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빅데이터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 측정

소비데이터 기반 연구용역 추진... 결과 홈페이지

사회 전반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및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경제 활성화 수준 측정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실제 시민들의 체감 경기와 밀접한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시점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추정하고, 소비연령별·구매업종별 경

기 현황을 파악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민간지출 부분의 대처방안으로는 일자리 질적 향상을 통한 소비 증대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소비 진작을 제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경제활성화 수준 측정 연구 결과는 군산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용역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경제 현황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배움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군산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교육 프로그램 가동

군산시가 장애인의 자기개발과 평생 학습을 위해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 중에 있다. 시는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예절 교육 등 3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장애인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시설인 나포갈벗공동체 등 9개 기관과 네트워크

를 구축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누구나 차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직업능력 보안을 위한 컴퓨터 및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댄스·난타·트레이닝·노래교실 프로그램 △심리안정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디지털 문해교육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 속 예절 프로그램 등이다. 이밖에도 시는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및 장애인과 부모가 함께하는 힐링캠프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배움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함께 배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군산시가 앞장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광대 IINC+사업단, 실전창업동아리 11개팀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I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는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전창업동아리 11개 팀을 선정했다. 실전창업동아리 선발 지원은 창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창업 준비와 자기 주도적인 창업 실현을 위한 것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필요한 실전창업동아리의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발표평가가 진행된 가운데 배

학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 및 학교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 아이디어를 낸 IT's 등 11개 팀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들 동아리는 오는 8월부터 5개월 동안 창업아이템 개발비 500만원과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참가 지원을 받고 창의아이디어뱅크 등록 및 창업역량인증제 활동 등 W-point 연계 혜택도 받는다. /익산=장양원 기자

"자전거 활용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김충영 익산시의원 제안

익산시의회가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지난 24일 김충영 의원은 "만경강에 조성되고 있는 만경강 문화관에 자전거를 소재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접목해 관광산업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만경강 문화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목천동 일원에 연면적 1만1500㎡ 지하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문화관이 오는 2021년 6월 조성 완료되면 시설물을 익산시가 인계받아 관리·운영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익산국토청에서 추진하는 용역에 운영 주체인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만경강 자전거길의 장점



을 살려 콘텐츠를 개발·접목할 경우 볼거리 제공과 관광산업 발전, 시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인구 10만명의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자전거박물관에 연간 25만명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특색 있는 문화관 조성을 주문했다. 그는 "만경강 문화관을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익산국토청이 추진하는 용역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경강과 자전거를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방안 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경로당 관리원 등의 협조를 받아 관내 523개소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자체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폐쇄됐던 경로당 운영 재개

군산시, 오늘부터... 관내 523개소 자체 방역소독 완료

군산시가 27일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됐던 경로당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경로당 관리원 등의 협조를 받아 관내 523개소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자체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특히, 경로당 내·외부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 손잡이 집기 등에 집중방역과 살균소독을 실시했으며, 경로당별 방역관리자 2명 지정, 비접촉 체온계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사전준비 후 경로당을 개방했다. 또한 코로나19 일일

모니터링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해 운영 재개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경로당 운영 재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경로당이 용자들의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대상 익산시, B형간염 예방접종

익산시는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B형간염 예방접종은 7월 1차 접종을 시작으로 9월 2차, 12월 3차로 총 3회에 걸쳐 완료할 예정이다. 접종 대상은 지난 6월 드림스타트 확립기 아동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을 통해 B형간염 예방접종 항목 미보유자 24명을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사정으로 그동안 B형간염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아동들에게 2차, 3차까지 차질 없이 접종을 완료해 질병 예방과 더불어 건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익산소방서 화재안전점검

익산소방서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만들기 에 나섰다.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7일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에 돌입한다. 더위로 인한 냉방기구 사용 증가로 실외기 등 냉방기기 화재가 잦아 많은 인파가 몰리는 관광지 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화재 건수는 602건으로 그 중 71%(493건)이 여름철 6월~8월 사이 집중 발생했다. 추진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을 편성하여 현장방문 컨설팅과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등 2대 안전무시관행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현지 시정 조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